



인술제세(仁術濟世)의 이념 실천하는 의학계의 대부

글_김성옥(자유기고가), 사진_박연숙 기자

현재 백병원과 인제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백낙환 이사장. 사회 각계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고회를 넘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혈색 좋고 건강해 보였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결핵퇴치 후원회」 발기인으로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 그가 후원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그 사연과 더불어 건강관리비법, 일에 대한 소신을 들어보았다.

직업을 말할 때 우리는 '천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천직이란, 말 그대로 하늘이 준 직업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인 탓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의사로서, 교육자로서의 길이 천직임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본 적 없다'는 백낙환 이사장의 말에서 한 시대를 소신 있게 살아온 이의 자신감이 엿보인다.

백병원의 역사를 함께한 의학자

인제대학교의 설립자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법인 의료기관인 백병원의 이사장인 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백병원의 창립자인 백인제 박사의 조카이다. 1941년 백인제 박사가 경성의전 교수직을 사직하고 현재의 백병원 자리에 설립한 백인제 외과병원이 백병원의 전신. 그후 백인제 박사의 남북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점점 쇠락해 가던 병원을 1961년 백낙환 이사장이 맡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 1975년 현대식 건물이 완공되면서 백병원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79년 인술로 세상을 구한다는 '인술계세' 이념 아래 설립된 인제의과대학은 차츰 학과가 증설되어, 1989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다. 인제대학교는 지난 2001년 대학종합평가에서 수도권 대학을 물리치고 당당히 2위에 오른 내실 있는 대학이다. 이렇듯 외과외사로 시작해 그가 걸어온 인생은 한 마디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인고의 세월이었다.



백인제 박사의 남북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점점 쇠락해 가던 병원을 1961년 백낙환 이사장이 맡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고, 1975년 현대식 건물이 완공되면서 백병원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여전한 건강. 비결은 꾸준한 관리

사람 나이에는 신체나이와 실제 나이가 따로 있다. 실제 나이는 20대지만 신체나이는 30대를 훌쩍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나이는 40대이지만 신체 나이는 30대 초반인 사람도 있다. 이는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백낙환 이사장의 건강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신체나이가 훨씬 적은 후자에 해당한다. 올해로 77세의 나이이지만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 온 때문인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그만의 특별한 건강관리법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조깅' 이란다. 백 이사장은 무려 40여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조깅을 해왔다. 또 일요일마다 산에 오르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데, 그것이 건강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요즘 현대인들은 운동을 안해요. 모든 병의 원인은 운동부족에서 온다고 봅니다.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20대의 한창 나이에 걸린 결핵은 백 이사장에겐 인생의 큰 고비였다. 당시만 해도 치료약이 없어 안정을 취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등의 간접 치료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순전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병, 결핵. 그는 그 때를 회고하며 '아마도 타고난 식욕과 절제된 생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이 병을 낮게 한 것 같다'고 말한다.

젊은 시절 앓았던 병, 결핵퇴치 후원회 인연 맺어

그러나 그에게도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다. 세상에 겁날 것 없이 혈기왕성했던 나이에 그를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결핵이었다. 20대의 한창 나이에 걸린 결핵은 백 이사장에겐 인생의 큰 고비였다. 당시만 해도 치료약이 없어 안정을 취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등의 간접 치료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순전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병, 결핵. 그는 그 때를 회고하며 '아마도 타고난 식욕과 절제된 생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이 병을 낮게 한 것 같다'고 말한다. 지금은 결핵을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는 결핵 치료를 위해 1년 동안 휴학을 해야만 했다. 약만 잘 먹어도 완치될 수 있는 병이 결핵이지만, 당시만 해도 결핵은 죽음으로 이르는 심각한 병이었다. 때문에 그때를

떠올리며 최근 「결핵퇴치 위원회」발기인으로 나서는 등 결핵환자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모든 병이 그렇듯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육체 뿐 아니라 정신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구요.” 그의 건강 비결은 단순히 ‘조깅’이 아니라 운동이든 일이든 꾸준히 지속하는 의지력에 있었다.

긍정적인 생각이 결과를 바꾼다

정신과 육체의 건강과 더불어 백 이사장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학교와 병원이라는 큰 사업을 지탱하다보면 힘든 때도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긍정적인 생각이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떻게 생각하는냐에 따라 행동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백 이사장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했고 지금의 모든 결과들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그가 의사라는 외길 인생을 걸어오는 데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의사라는 직업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사’ 일 수 있었다.

“의사가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의사는 오로지 봉사정신과 보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큰 돈을 원한다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해야겠지요”라며 후배들에게 전하는 따끔한 일침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뿐 아니라 직업의식이 결여된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

